

제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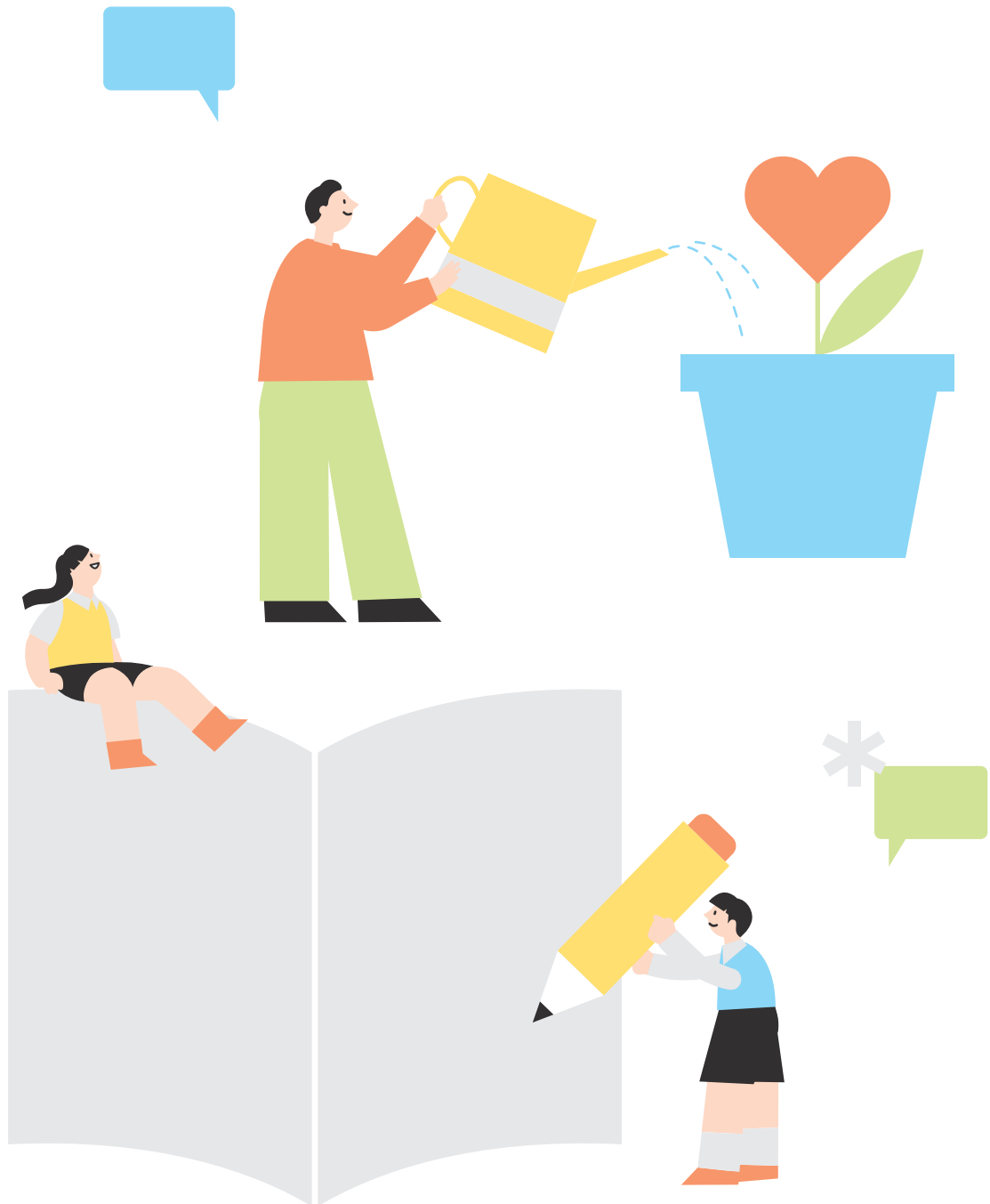
아동 기본사회 실현,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소개 및 목표

- 04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05 왜 만들어졌나요?
- 06 목표는 무엇인가요?
- 07 주로 어떤 것이 바뀌나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08 아동수당 확대
부모의 돌봄 시간 확대
지역돌봄 확대
- 09 건강과 의료 지원 강화
정서발달 지원
여가·문화·체육 확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11 공적 입양체계
가정위탁 확대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강화
- 12 취약아동·가구 지원 확대



아동의 참여를 통해 아동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 14 아동 권리보장 강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참여 및 의견 표현



아동 기본사회 실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1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나라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아동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기관들이 아동의 생활과, 건강, 보호, 권리 등과 관련된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행합니다.

건강

생활

보호

권리



2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먼저 지난 2023년에는 아동의 실제 생활을 살펴보고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조사(아동종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다시 아동과 아동단체, 언론*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25년 8월 8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9월 30일에는, 여러 정부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11월 25일에 국무총리께서 직접 진행하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12월 26일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뉴스나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과 논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청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모임'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잠시 가정을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서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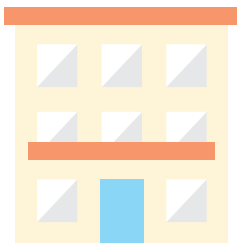
* 인천 서구 12살 아동('25.2.26), 부산 부산진구 7살·10살
자매('25.6.24), 부산 기장군 6살·8살 자매('25.7.2)

비만이나 우울증을 겪는 아동이 늘어나는 등 아동의 몸과 마음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아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9~17세 아동 비만율) '18년 3.4% → '23년 14.3%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 '19년 5.3만명 → '23년 8.1만명

** (과의존 위험군 비율, '24년) 성인 22.4%, 유아동 25.9%, 청소년 42.6%



최근 **ADHD***, **경계선지능***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나 재학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중 ADHD 아동은 23.9%,
경계선지능 아동은 18.3%로 나타남('24)

** (아동학대 의심 건수) '20년 3.9만건 → '24년 4.7만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며,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도한 활동량과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신경 발달 질환입니다.

경계선지능* 지능 지수(IQ)가 지적장애(IQ 70 미만)와 평균 지능(IQ 90 이상) 사이 경계에 위치해, 지적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 지능보다는 낮아 학습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동이 직접 정부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 '19년 77.1% → '23년 84%

** 아동 스스로 정책 참여 기회를 인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22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3차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적인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상을 보내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의료, 교육, 여가 등 아동이라면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이라면 누구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돕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입양 업무를 관리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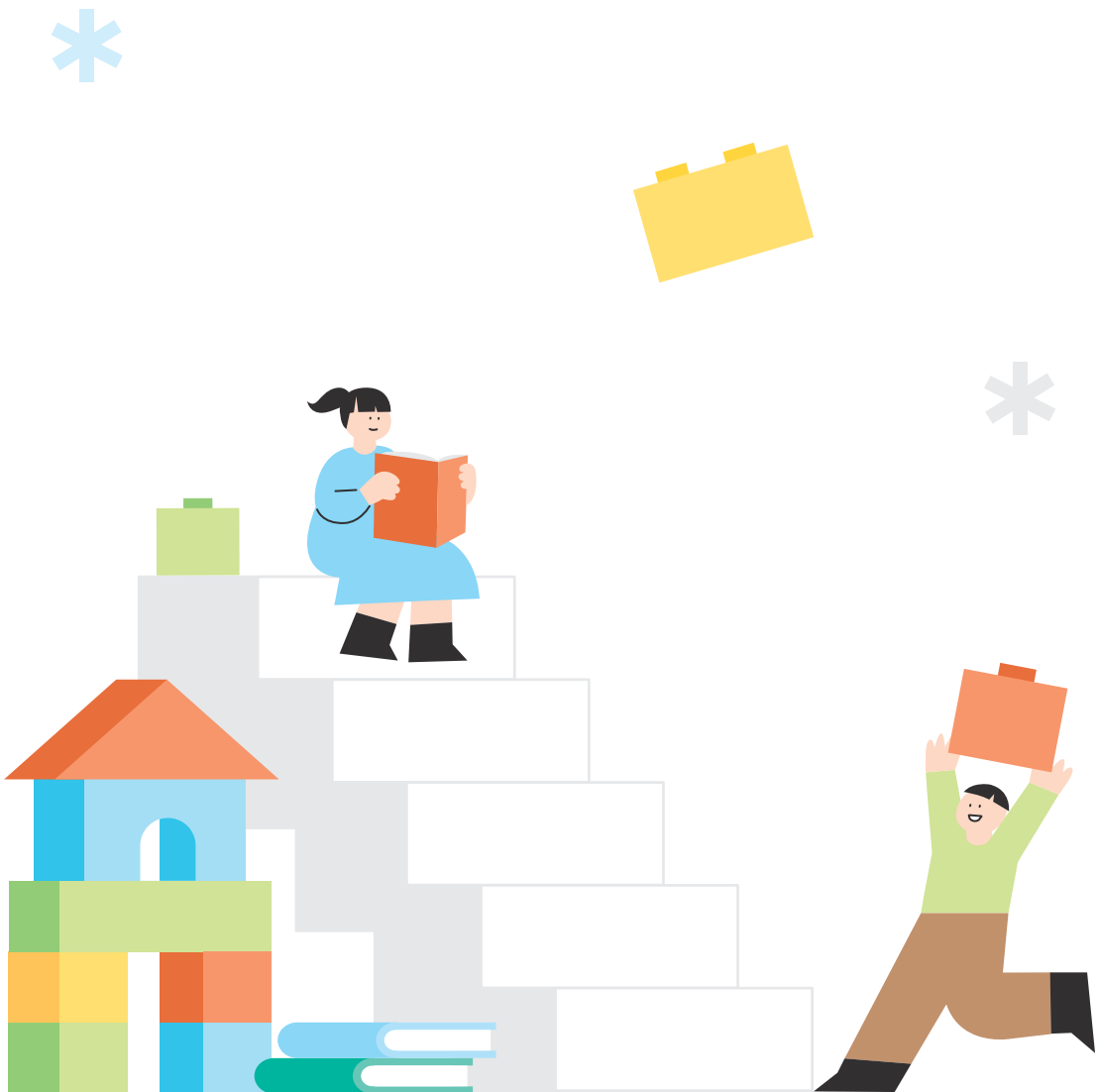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이 존중받는 지역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정책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주로 어떤 것이 바뀌나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주요과제와 78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주요 과제입니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지금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수도권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합니다.

* 아동수당 지원 연령: ('25) 0 ~ 7세 → ('26) ~ 8세(1세↑) → ('30) ~ 12세(5세↑)



부모의 돌봄 시간 확대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더 쓰기 쉽게 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녀에 맞춰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역돌봄 확대

방과 후 또는 늦은 밤에 보호자가 없어 나 홀로 있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을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 등 돌봄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정책 이름	내용	변화되는 점
마을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17세), 다함께돌봄센터(6~12세)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맡아 식사와 교육, 체험활동 등 제공	돌봄 제공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고, 제공기관도 전국 360개 마을돌봄시설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서 돌봄 제공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늘리고, 아이돌보미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만들고 확산



건강과 의료 지원 강화

계절독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사람에게 옮는 흔한 바이러스지만 일부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 등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넓히고, 아동이 아플 때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합니다.

정책 이름	내용	변화되는 점
계절독감 예방접종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단계적 확대	(‘25년) 6개월 ~ 13세 → (‘26년) 6개월 ~ 14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여아에서 남아까지 점진적 확대	(‘25년) 12 ~ 17세 여아만 → (‘26년) 12세 남아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가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25년) 최대 1천만원 지원 → (‘26년) 최대 2천만원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야간과 휴일에 증세가 심하지 않은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어린이병원 운영	(‘25년) 101개소 → (~’30년) 140개소



정서발달 지원

최근 증가하는 SNS,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상담을 지원하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먼저 알아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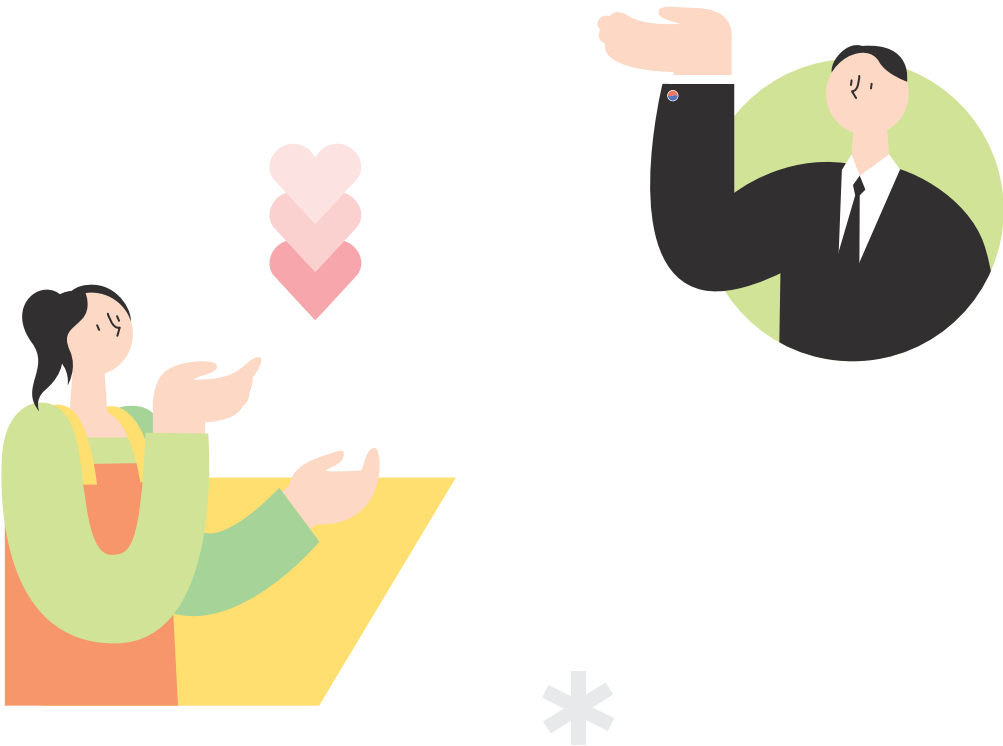


여가·문화·체육 확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적절한 쉼과 놀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학교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활동을 늘리고 체육시설도 확대합니다.

* 학교 복합시설 확충 : (‘24) 80개 → (‘27) 200개 목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공적 입양체계 (나라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입양체계)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받아들이고, 해외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 해외입양 아동 수: ('20) 232명 → ('22) 142명 → ('24) 58명 → ('25) 24명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아동이 살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입양을 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간의 약속입니다.



가정위탁 확대 지원

위탁부모를 더 많이 모집하고 지역에 있는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더 빨리 발견하여 지원하고, 학대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학대받은 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돕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 대책을 도입합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엄청난 데이터를 스스로 공부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지털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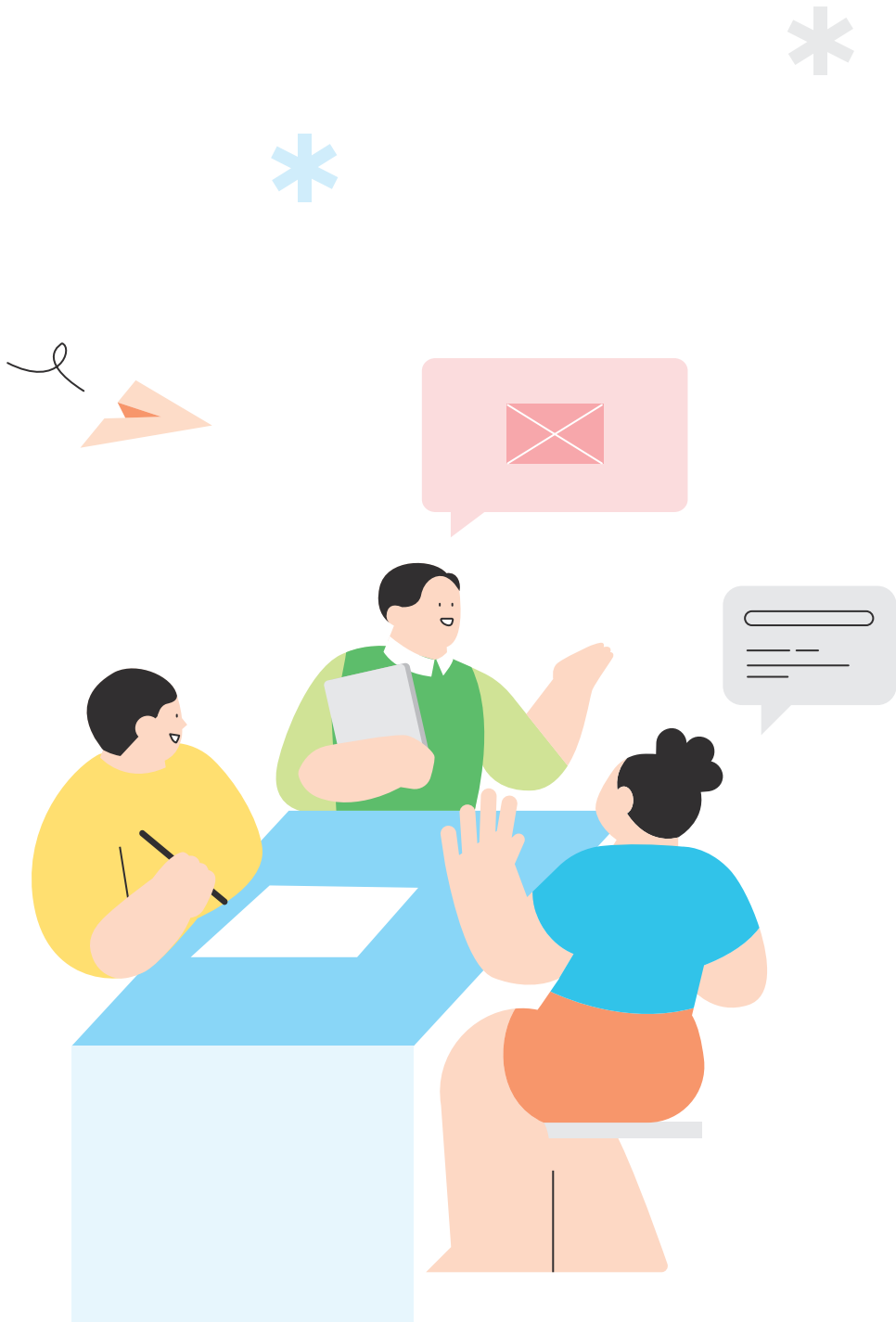


취약아동 · 가구 지원 확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위한 지원(드림스타트)을 확대합니다. 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한부모·다문화가족,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과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의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책 대상	지원 내용	변화되는 점
경제적 취약 아동	발달단계와 학업 수준, 가정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지원 제공
장애아동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치료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치료기관을 늘리고,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경계선지능 아동	지적장애는 아니나 인지기능이 낮아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교실과 학교, 학교밖 3단계 안전망을 통해 학습속도와 수준을 고려한 학습 제공
한부모가족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 양육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학용품비 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적응 지원	부모와 아동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진로설계 지원
미등록 외국인 아동	정식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검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자격을 주고(∼'28년), 실태조사와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
수용자 자녀	부모의 수감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	보호자가 수감된 아동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참여를 통해 아동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아동 권리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을 제정합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정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추가 약속으로, 이번에 채택 준비하는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했을 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하고, 아동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합니다. 또한, 아동 친화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확대하고, 아동이 어려운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정책 참여 및 의견 표현

아동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합니다. 또한 이혼이나 입양과 관련된 재판,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충실히 시행하여,
아동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행정보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주 소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아동권리보장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대표전화 02-6454-8500

홈페이지 www.ncrc.or.kr

디자인 그래픽오션

